

2018년도 졸업논문 소개

한국어 신체어 ‘눈’의 의미 확장과 어휘론적 분절

야마노이 데쓰아키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신체어인 ‘눈’이라는 단어의 의미 확장 양상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눈’은 우리 인간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으므로 ‘눈’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의미에서부터 보다 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의미의 확장도 그만큼 활발히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을 의미 확장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X]+‘눈’] 및 [‘눈’+X]]구조인 단어 중 사람의 자질을 지니는 모든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그 어휘론적 분절(Artikulation, Gliederung) 구조를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밝히며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어 있는 단어에 통일성이 없으며 대상이 되어 있는 어휘의 양도 한 어휘장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통일성 있게 선정하면서 어휘의 양도 더 확대하여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눈’의 의미 확장 양상을 [형태면의 ‘눈’](目: 코 위에 있는 눈알이 있는 부분)과 [기능면의 ‘눈’](眼: 사물을 보는 능력) 두 가지로 나누며 [형태면의 ‘눈’]을 ‘눈’의 중심 의미로 잡아 의미 확장도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의 확대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눈’ 명칭의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3.1에서는 기본 구조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3.2 이후에는 3.1에서 밝힌 기본 구조에 따라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3.2에서는 외형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하위 분류로서 색, 개수, 크기, 생김새(3.2.1~3.2.4)에 따른 분절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3.3에서는 상태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해 다루었다. 구체적인 하위 분류로서 충기(聰氣), 정상, 비정상, 행위(3.3.1~3.3.4)에 따른 분절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3.4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 3.4에서는 능력을 〈있음〉과 〈없음〉의 두 자질로 나눠서 각각 3.4.1과 3.4.2에서 살펴보았다.

3.5에서는 비유에 따른 분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눈 부위에 따른 분절 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 눈 부위를 〈눈 주위〉와 〈안구〉의 두 자질로 나눈 뒤, 〈눈 주위〉를 4.1에서, 〈안구〉를 4.2에서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1980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일탈 재현 양상 연구

진 영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 일탈 양상 및 그에 대한 처벌양상을 분석하고 그 성격과 의미를 고찰해봄으로써 1980년대 한국영화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이 시기 영화에서 나타난 독특한 여성의 일탈을 범법으로서의 일탈과 성적 일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범법의 양상은 1980년대 한국영화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 영화들 속에서 일탈 재현의 첫 번째 성격은 양가성이다. 재물에 대한 범법을 행하는 여성은 주로 하층여성이다. 1980년대 한국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력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abor force)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경제화’이다. 노동력의 여성화는 이중억압을 통해 여성의 불안정함을 강화시키며 서비스 경제화는 성차별과 성적 불평등을 격화시킨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하층여성들은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도덕적 혼란에 빠져 불법과 합법의 선에 서게 된다. 즉 아노미(anomie)의 상태에서 빠진다. 이는 그녀들로 하여금 제도적 수단에 의한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중억압의 상황에 대한 극단적 저항으로 해석된다. 남성성의 위기와 여성을 성적 상품화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국가적 정책은 하층여성들을 하여금 경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으로 통한 가치 교환을 택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화들은 전 시기의 영화와 달리 ‘타락’의 과정보다 그녀들이 일탈에 대한 ‘선택’에 중점을 두어 그녀들의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하

면서 일탈의 책임을 그녀들에게 전가한다.

이 시기의 한국 영화들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적 일탈에서 그녀들의 능동적인 성적 추구를 포착하는 관음주의적 시선과 내러티브의 폐쇄성은 여성을 타자화 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욕망의 표출을 통해 여성의 주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순적인 재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매춘〉과 〈어우동〉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불평등한 성 위계질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식을 제시한다. 〈애마부인〉과 〈오늘 여자〉는 일탈 재현을 통해서 성적 욕망 표출과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능동성을 보여준다. 〈화춘〉과 〈사방지〉는 한국영화사에서 드물게 보이는 성소수자를 스크린 위에 재현하여 그들의 퀴어적 정체성 찾는 과정에서 성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화내에 내재된 두 가지 처벌 방식 중의 하나는 낙인찍기이다. 일탈 행위에 대한 가부장제 낙인찍기의 과정은 곧 겉으로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일탈한 여성들의 타자화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낙인찍기는 스크린 내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영화들은 상영을 통해 공식으로 스크린 바깥에 있는 여성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은 은밀한 처벌 방식이다. 그러나 이 시기 영화들이 영화의 끝에서 일탈을 한 여성들에게 공식적 처벌을 가하지 않는 서사 기법은 독특하는 점이다. 공식 처벌이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적 능동성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다른 한편 공식 처벌이 없는 서사내에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시도가 내재된다.

석사학위 논문

염상섭의 초기작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김 윤 주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 연구는 황보 염상섭의 초기 평론 및 소설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유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1920년대 주체의 모습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대는 근대적 개인 개념이 일본을 경유하여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는 시기이다. 염상섭 또한 일본 유학생으로서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주의(文化主義) 사조를 수용하여 개인 개념을 정립해나간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소설 창작 이전 평론을 통해 그가 사유한 개인 개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귀국 이전 평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개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문화주의의 맥락에서 마련한다는 점이다.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을 전제로 개개인이 내면의 인격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문화주의의 핵심 인간관이 이 시기 염상섭의 평론에서도 드러난다. 귀국 이후 염상섭의 개인은 ‘현실폭로의 비애’라는 키워드를 통해 변모한다. 외부의 권위를 타율적으로 수용하던 개인이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겪는 ‘현실폭로의 비애’를 강조함으로써, 염상섭은 자기반성을 통해 주체 스스로 지식을 정립할 것을 역설한다.

3장에서는 염상섭의 초기 소설을 분석한다. 평론이 개인의 규범적 의미를 제시한다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개인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초기 단편은 남성 지식인과 신여성 인물을 주동인물로 하는 두 계열로 나뉜다. 남성 지식인의 서사에서 지식인 인물들은 개인 간의 배타적인 소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거부하려는 지향을 보인다. 한편, 신여성의 서사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물질적 교환관계로 변질될 때, 개인

의 자율성은 보존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신여성의 실패를 통해, 염상섭은 개인의 권리를 물질적 욕망의 추구로 혼동하는 인물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염상섭의 초기 장편 『만세전』과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를 분석함으로써 염상섭이 개인에 대한 사유를 장편소설로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편소설의 지식인 인물들은 개성과 물질적 욕망이라는 상반된 두 본성이 공존하는 내면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같은 인물의 내적 모순을 서사화하기 위하여, 서사 기법 ‘아이러니’가 채택된다. 『만세전』의 아이러니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서사를 서술자가 과거의 모순된 심리와 행동을 자성(自省)하는 과정으로 재독하였다. 신문연재소설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에 이르면, 비판의 대상이 복수(複數)의 지식인 인물로 확장된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아이러니컬하게 드러냄으로써, 염상섭은 자기반성이 결여된 지식인 인물들을 비판한다.

염상섭의 초기작은 식민지 조선의 구성원이 어떻게 이상적인 개인에 도달할 것인지를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는 자기반성이 가능한 자율적 주체를 정립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의 추구를 역설하면서도 물질적 욕망에 이끌리는 지식인들의 내적 모순이 비판된다. 이로써 염상섭의 초기작은 계몽의 비전이 뚜렷하였던 1910년대의 서사와는 다른 인간형을 형상화하였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게 된다.

석사학위 논문

김동인 단편소설의 서사적 변화 양상 이야기와 서술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 춘 규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 논문은 김동인의 각 시기별 단편 소설에 나타나는 기법적 특색을 이야기와 서술자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기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김동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대체로 「감자」가 발표된 1925년을 전후로 한 시기를 정점으로 보고, 그 이후의 작품들은 퇴보 혹은 연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김동인 문학의 기법적 완성기로 보는 연구사에서 탈피하여, 작품 활동을 재개한 1929년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동인의 「소설작법」에는 인물과 서술자의 관계를 다룬 시점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 그가 제안한 일원묘사, 순객관묘사, 다원묘사 등은 제라르 주네트의 초점화 이론에서 다루는 내적 초점화, 외적초점화, 비초점서술과 상응한다. 이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정보량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서술자가 가지는 정보량에 따라서 서술의 형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김동인의 초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와 서술자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시기(1919~1924) 작품의 서술자는 일원묘사의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사건과 허구 세계에 대한 묘사는 모두 인물의 내면에 의해 주 관화되어 있으며, 왜곡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야기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인물의 허위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인물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인물과 서술자는 반어(irony)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임이 드러난다.

3장에서는 서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원묘사에서 벗어나 서술자가 인물, 사건, 허구 세계와 같은 이야기의 요소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되는 시기(1924~1927)를 분석했다. 김동인은 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오히려 소설의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인물을 행위하도록 만드는 가난, 환경, 종교, 이념과 같은 ‘행위제공자(power)’가 새로운 행위의 주체로서 등장한다. 서술자는 「배따라기」(1921)에서 등장하는 ‘운명’과 같은 절대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물의 타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정론적 세계관이 형성된다.

4장에서는 김동인이 문단으로 복귀한 1929년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작품들을 분석했다. 이 시기의 서술자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accident)에 인물과 함께 놀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소 불명료해지지만 독자에게 인생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김동인 연구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1930년대의 작품들은 근대 소설양식의 확립이라는 문단적 과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다양하고 파격적인 형식의 변화를 낳았으며, 인생이 던지는 질문을 독자와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문학의 수준’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넘어 김동인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발한 것으로, 한국 문학의 자생적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석사학위 논문

玉坡 申弼永의 「冽上紀行絶句」 연구

표 가 령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명호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시인, 玉坡 申弼永(1810~1865)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규명하고 그의 대표작 「冽上紀行絶句」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이룩한 문예적 성취를 19세기 한국 한시사에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18세기 문학과 19세기 문학의 연속적 발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종래의 19세기 문학사 서술에 나타난 왜곡을 바로잡고 空白을 메워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19세기에 활동한 다양한 문인들의 문학세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신필영과 그의 한시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신필영은 象村 申欽의 후손으로, 양반 명문가인 平山 申氏 가문에서 배출된 저명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조부 申獻朝가 말년에 관직에서 사출된 이후로 신필영은 가난한 환경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으며, 평생 포의로 살다가 만년에 昌陵參奉을 지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당대 명문인 咸從 魚氏 집안과의 戚分 및 豊山 洪氏 집안과의 각별한 교분을 통해 19세기의 유명 문인 학자로 꼽히는 徐有桀·洪奭周·洪吉周·丁學淵·尹定鉉·金永爵·朴珪壽·洪祐吉·洪祐健·金尙鉉 등과 교유하며 활발한 문학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18세기의 실학적 학풍을 계승하면서 문학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교류했던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이었다.

「열상기행절구」는 신필영이 1846년 8월(음력)에 한강의 東湖와 南漢江 일대를 여행하면서 지은 7인 절구 100수의 연작 기행시이다. 신필영은 평소 국내 여행을 즐겨 다니면서 다양한 기행시를 남겼다. 그중 특히 「열상기행절구

」는 그의 시세계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懷古詩, 山水景物詩, 懷人詩, 輓詩, 悼亡詩, 紀俗詩, 農村詩 등 다채로운 양식의 시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양식별 특징에 의거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필영은 회고시와 산수경물시를 통해, 流霞亭, 南漢山城, 春草亭, 通村書院 등 한강변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典故와 회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巴堂, 藍子洲, 斗陵, 龍門山 등지의 情景美를 묘사해내었다. 다음으로 그는 회인시와 도망시를 통해, 작고한 홍길주, 김매순, 서유구, 申翊聖, 자신의 처 延日 鄭氏 등不在한 인물들을 추모하였다. 悲愴한 심정을 곳곳에서 토로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강화하였으며, 省墓 여정을 추가함으로써 한강 유람을 위주로 한 이 시의 내용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또한 신필영은 한강 일대 향촌민의 삶과 자신의 고향인 砥平縣 일대의 추수철 풍경을 제재로 한 기속시와 농촌시를 통해, 독섬·송파나루 등지의 농민 생활상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朝鮮風’을 추구하여 조선 농촌의 특색을 전면에 드러내었다. 특히 농촌시에서는 해학적인 묘사나 대화체 등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잘 살려냈다.

서유영의 「西湖竹枝詞」, 정약용의 『穿牛紀行』, 신위의 「西江絕句」 등 19세기의 대표적인 한강 죽지사나 한강 기행시들과 비교해 보면, 「열상기행절구」는 18세기 한시의 죽지사풍과 연작시 창작 경향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죽지사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地理志 및 人物志로서의 특색을 가미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정-소주제1-소주제2-소주제3-여정’이라는 짜임새 있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열상기행절구」는 연작 형식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노래하면서도 구성의 완결성을 성취함으로써 주제와 형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빼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存齋 魏伯珪의 寓言 문학 연구

손 의 군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본고는 조선 후기 문인 存齋 魏伯珪(1727~1798)의 寓言 문학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위백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문학세계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했다. 본고는 위백규의 문학에서 사물과의 맞닥뜨림을 바탕으로 한 寓言의 요소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고는 그의 寓言의 글쓰기 안에 평소 삶의 지향과 현실비판적 인식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II장에서는 寓言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存齋全書』를 주 텍스트로 삼아 위백규 寓言 문학의 범주를 규정해 보았다. 본고에서 상정한 寓言 문학이란, 장르나 문체를 불문하고 알레고리 등의 수사 방식을 특징으로 한 일군의 작품들이다. 위백규는 상당히 다양한 범위에서 寓言의 수법을 구사하였는데 III장에서 格物工夫에 대한 그의 열의와 그 표출로서의 寓言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가 대수롭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寓言의 글쓰기의 소재로 삼아서 사소한 일상의 의미를 돌아보고, 올바른 처세방법과 경세술을 제시하거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아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IV장에서는 사물을 대상화함으로써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한 寓言 작품에 대해 고찰하였다. 뚜렷한 지향성과 풍부한 문학성을 갖춘 이 작품들에서 위백규가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한편 主旨 구현에 있어 형식미를 세심하게 배려한 그의 뛰어난 문장력도 함께 살폈다. 마지막 V장에서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들과 나눈

대화를 적은 寓言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물과의 談論과 對辯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적시하는 한편 가난과 불우에 지친 마음을 고식적으로나마 이완하려는 위백규의 의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위백규가 성리학자로서의 격물공부와 작가로서의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古文, 近體詩와 古體詩, 淸言小品 등 다양한 문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위백규 寓言 문학이 주제의식과 형식미를 고루 갖추어 수준 높은 경지를 이루었음을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위백규의 문학 세계가 지닌 특징적인 면모를 조명함과 동시에 다기하게 전개되던 조선후기 寓言 문학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天隱 趙宗鉉 문학 연구

최 고 경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본고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18세기 문인 天隱 趙宗鉉(1731~1800)의 문학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당대 지식인층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개성적인 문학세계를 드러낸 그의 시문을 분석함으로써 조종현의 문학에 정당한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문화사적으로 18세기는 기존의 낡은 관습과 틀을 깨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던 시기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 문화가 발전하면서 산수 유람이 성행하였고, 이전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동국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역사를 시로 형상화한 영사악부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아울러 古文을 탈피한 새로운 양식의 시도로 소품이 출현하였고, 이전까지 玩物喪志라 비난받았던 취미들이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향유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종현의 시문집 『天隱亂稿』에 수록된 작품 중 산수 유람과 동국 고대사, 화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에 주목하여 당대 지식인층의 학문적, 문화적 흐름 속에서 구축한 그의 개성적인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북 지역을 유람하고 창작한 「北征五百言」은 記나 錄, 또는 연작형 기행시가 지배적이었던 당대 유기류의 형태와 달리 5천언이나 되는 장편 고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들과 변별된다. 또한 산수 자연을 노래하거나 농어촌 백성들의 생활상을 포착하는 일반적인 기행시적 특징에 역사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가미하여 조선후기 장편 기행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의의를 지닌다. 그는 기행시의 전통을 이으면서 함흥이 지나는 조선 개국의 역사에 주목하여 18세기 함흥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관심을 문학적으

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함흥 지역에 대한 조종현의 각별한 애정 및 조선 후기 왕실사적을 추승하여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영·정조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단군부터 가야까지의 고대사를 시로 형상화한 「三史異蹟」에서는 조종현의 남다른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조종현은 당시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그 실체와 신이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단군을 「삼사이적」의 첫 머리에 내세우고, 소중화의 근원으로 중시되었던 기자를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사유와 상반되는 역사의식을 보여주었다. 정조 이전부터 고대 건국신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려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인식의 영향이 감지된다. 또한 「삼사이적」은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 영사시, 영사악부, 족지사의 특성을 모두 보이고 있어, 기존의 여러 양식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했던 조종현의 개성적인 문학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종현은 또한 소품에 월령체 양식을 접목시킨 「花月令」을 창작함으로써 조선 후기 원에 취미의 확산으로 유행처럼 쏟아져 나왔던 여타의 화훼서들과 차별화하였다. 명나라 王象晉이 편찬한 『群芳譜』를 중심으로 중국의 방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은 당시 명청대 서적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박물학적 관심이 축적된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화월령」에 그 내용을 확장 및 보완한 월령체 한시 「詠十二候」를 덧붙임으로써 시와 산문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이 조종현은 당시 지식인층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학적 유행에 동참하여 작품을 창작하되, 전형적인 문체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모색했던 조종현의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석사학위 논문

이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가사적 의미

김 혜 진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해숙

이 논문은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 1561~1625)의 가사 작품이 지닌 특징과 이에 담긴 내면의식을 고찰하여 조우인의 가사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대(前代) 사대부 가사에서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조화로운 세계관을 노래하는 관습적 지향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우인의 가사는 17세기 사대부 가사의 새로운 국면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기존의 연구는 조우인이 당면한 정치현실과 작품을 대응시켜 작품에 나타난 현실 비판적 면모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작품의 실상을 보면 폭정이라는 외적 현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처우에 대한 내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국의 혼란과 전란의 위기 속에서 문학적인 대응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드러낸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논의 전개 과정에서 가사 작품의 이면에 반영된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현전하는 조우인의 가사 네 편은 모두 조우인이 장년에 매호(梅湖)에 이주한 이후 창작되었으므로, 매호 이주는 조우인의 가사 창작에 중요한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매호 이주는 순탄하지 못한 환로로 인한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나, 조우인은 그 이후에도 광해군대 대북(大北) 정권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현실 정치에 끊임없이 참여하였다. 강한 경세(經世) 지향과 이의 좌절 때문에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미련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던 소회가 가사 작품에 표출되어 있다.

조우인의 가사는 전대 가사의 대표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기행가사, 강호가사, 연군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행가사에서는 여정(旅程)에서 경물들이 촉발하는 감정을 서술하는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기행 외적 상황으로 인한 현실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출새곡(出塞曲)〉에서는 한양을 떠날 때부터 시적 자아의 내면을 지배하였던 적객으로서의 인식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관동속별곡(關東續別曲)〉에서는 탈속적으로 형상화된 기행 공간에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환기하며 험난한 세로를 겪어온 지난 삶을 위로하고 있다. 강호가사에 속하는 〈매호별곡(梅湖別曲)〉에서는 강호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그를 점유한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서의 삶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면모가 나타난다. 이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자족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자도사(自悼詞)〉는 이원적인 공간으로 구현된 이별 상황에서 헌신적인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연군가사의 핵심적 특성을 공유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임의 주변 인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들과 다른 순전한 사랑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대 연군가사와 다른 지향을 공유한다.

조우인의 가사는 전대 사대부 가사의 외연과 맞닿아 있으나 그와 다른 내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지향을 이룰 수 없는 정치현실로부터의 소외 의식이 창작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우인의 가사는 현실과의 불화로 인해 방황하는 내면 심리를 정돈하지 못하고 가사에 여실히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주제 의식을 구현하였다. 이로써 가사의 전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개별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17세기 가사의 변화를 예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석사학위 논문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에 대한 연구

방 원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이 논문은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목록, 어기와 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나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과 국립국어원(2004~2013)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에 실린 각 어형들을 분석하여 전국 방언의 사동파생접미사 목록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언 지도를 통해서 각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파·사동 파생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접미사의 목록과, 어기와 접사의 결합에서 볼 수 있는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조건이 다르다. 특히 파동사에 비하여 사동접미사의 목록이 더 다양하고 방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보인다. 아울러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정 지역어의 사동접미사 양상과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연구하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집》과 《보고서》는 약 20~30년의 조사 시기의 격차가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모든 사동사를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목록에 따라 ‘-이-’계와 ‘-우-’계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소결에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 방언간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두 자료의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어미 ‘-ㄴ지’의 통사와 의미 연구

김 다 미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어미 ‘-ㄴ지’의 문법적 기능이 다양함을 보이고 각각의 문법적 기능에 따른 통사·의미적 특징을 정리하는 데에 있다.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내포 의문절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ㄴ지’는 기원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명사 ‘디(이 지)’가 결합한 구성이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이다. 이것이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현대 한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문법화를 겪으며 내포 의문절 형성, 질 접속, 문장 종결 등으로 그 용법을 확장하게 되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는 계사 어간 ‘-이’에 종결어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인 ‘-인지’가 하나의 조사처럼 쓰이는 용법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본고는 내포 의문절 어미로 쓰이는 ‘-ㄴ지’가 그 외의 문법적 기능들을 파생시킨, 가장 원형적인 틀을 제공하는 용법임을 확인하고 각각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ㄴ지’가 보이는 주요 통사·의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내포 의문절을 형성하는 ‘-ㄴ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ㄴ지’(<‘-ㄴ디’>)가 문중되는 가장 이른 시기인 15세기의 자료에서부터 ‘-ㄴ지’는 주로 내포 의문절을 만드는 데에 쓰였다. 이때 ‘-ㄴ지’는 결합하는 절이 명사의 성격을 띠도록 만드는 동시에, 그 절의 명제 내용이 화자나 상위문 주어의 인식 영역에서 미지(未知)나 불확실성의 위치를 차지함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본고는 내포 의문절 어미 ‘-ㄴ지’의 핵심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는 ‘의문’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인식 양태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안하며, 나아가 내포 의문절을 만드는 ‘-ㄴ지’의 문법적 지위는 ‘내포 의문절 어미’ 그

자체로 정의되고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3장에서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ㄴ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때의 ‘-ㄴ지’는 불확실한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연결 어미로서, 후행절에 제시되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태의 원인을 화자가 추측하여 선행절에 나타낼 때 쓰인다. 이는 본래 내포 의문절 어미 ‘-ㄴ지’가 가지고 있던 인식적 불확실성이라는 양태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ㄴ지’가 내포 의문절을 형성할 때 보이는 불확실성의 양상이 단일한 것이었다면 절을 접속할 때 보이는 불확실성은 이중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제4장에서는 절대문말에 와서 문장을 끝맺는 ‘-ㄴ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ㄴ지’로 마치는 문장들은 대개 독백이나 자문(自問)의 의미로 이해가 되는 데, 이러한 의미 특성은 주로 인지 동사 및 사유 동사와 어울려 내적 의문을 나타내던 내포 의문절 어미 ‘-ㄴ지’로부터 남은 것으로 이해된다. 절대문말의 ‘-ㄴ지’가 직접 의문을 형성할 때에는 보조사 ‘-요’가 덧붙는 것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절대문말에서 문장을 종결하는 ‘-ㄴ지’의 이러한 특징은 중세 및 근대 한국어 논의에서 반말체 어미로 언급되는 예들의 특징과 흡사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계사 어간 ‘-이-’에 ‘-ㄴ지’가 결합한 ‘-인지’가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조사처럼 쓰이고 있음을 보인다. 비슷한 형성 원리를 갖고 있는 ‘-인가’가 조사로서 문법화되었다는 견해가 여러 논의에서 제시되어 온 것에 비해 그간 ‘-인지’는 그러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본고에서는 ‘-인지’가 때로는 인식적 불확실성 혹은 무시나 비하의 의미를 표현하는 보조사로서, 때로는 제3항에 대하여 열린 이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로서 기능하는 예를 보인다.

제6장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계를 살펴보며 추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석사학위 논문

정현종 시에 나타난 사물 인식 연구

김 경 미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이 논문의 목적은 정현종 시편 전반에 나타나는 사물 인식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세계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물의 꿈』(1972)이라는 첫 시집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정현종은 초기부터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 시인 중 하나이다. 정현종은 주체의 주관적 관점에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사물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비롯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한 시적 이미지로 사물을 인식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체와 사물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내에서 창조되는 시적 이미지는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인식으로 나아갔다.

본 연구는 등단작부터 시집 『한 꽃송이』(1992)까지의 시 작품들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세 가지 시기 구분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그의 등단작부터 첫 시집 『사물의 꿈』(1972)과 시선집 『고통의 축제』(1974)에 수록된 작품들을 초기로 구분하고, 그에 나타난 사물 인식의 근본 원리를 살펴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변형한 『사물의 꿈』 표지는 기하학적 도형에서 탈주하려는 인간의 형상을 담고 있다. 이는 정현종의 사물 인식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동성을 사물의 본질로 삼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역동성은 주체와 사물의 비밀을 교통하는 거울 모티프를 통해 ‘방법적 사랑’이라는 사물 인식의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주체와 사물 사이의 역동적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들의 변화를 통해 사물에 바탕을 둔 시적 이미지의 창조성을 밝힌다.

3장에서는 『나는 별아저씨』(1978)과 『떨어져도 튀는 공』(1984)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기로 구분하고, 정현종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는 ‘순간’에 관한 시간 의식을 바탕으로 시적 이미지의 창조성을 살펴본다. 시적 순간은 ‘말’을 통해 울림 있는 시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상상력의 공간으로 지평을 넓히게 된다. 정현종은 침묵을 강요하는 당대의 상황을 ‘말’에 육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부장수와 가객과 같은 전통적인 존재를 호명함으로써 ‘말’이 억압된 현실의 기계론적 운동을 ‘정지’(순간-말)시키고 교란(방랑)한다. 이러한 시각은 정현종의 시간의식이 1970년대 한국의 사공간적 조건과 무관하다는 기존 연구의 관점에 제고를 요청한다.

4장에서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1989)와 『꽃 한송이』(1992)에 수록된 작품을 후기로 구분하고 파블로 네루다 번역을 계기로 좀 더 구체화된 그의 사물 인식과 세계 인식으로의 확장을 살펴본다. 정현종에게 번역은 기존의 감각과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주체적 언어로 표현해내는 창작 활동의 일환이었다. 특히 본고는 정현종의 번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친연성을 드러낸 파블로 네루다에 주목한다. 네루다의 자연 인식은 사물에 대한 ‘회심(回心)’의 공간으로서 자연을 인식하는 정현종의 관점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은 정현종의 시에서 ‘기리는 노래’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후기에 나타난 정현종의 자연 인식을 생태주의로 해석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정현종에게 자연은 세계를 비약적이고 충동적인 힘들의 구성으로 인식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정현종의 사물 인식은 정현종의 시 세계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탈피하고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해명하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내면 탐구와 실존적 위기의식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사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던 1960년대 시단에서 ‘사물의 독자성’에 천착하였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석사학위 논문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 연구

이 심 역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욱

본 논문은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인식을 보다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 중국과 북경에 대해 한국 지식인의 심상지리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근대 한국문인의 북경 방문과 이로써 획득한 북경 체험의 실상을 검토하고 밝히면서, 그들에 의해 기억되는 북경,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표상되는 북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규명한다. 이로써 한국문인이 북경을 인식할 때 각자의 특징을 밝히는 동시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가려내며 최종적으로 북경 인식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1920년대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 대표적으로 심훈은 북경을 통해 역사 흐름 속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자신과 조국 조선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에 대해 더욱 뚜렷한 비전을 획득한다. 또한 박세영이 근사한 처지에 놓인 중국을 조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가 중국을 위해 곤경을 타파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을 조선을 위해 미래의 길을 비춰주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선보인다.

만주사변부터 1937년 북경 함락까지 한국 지식인이 중국에 대해 초보적 현장감과 객관성을 지닌 인식이 형성되며, 중국 혁명 경험에 대해 독자적인 목적의식을 갖추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선보인다. 정래동은 신문 화운동의 중심지인 북경에 머문 동안 중국문학의 진보적이고 배울 가치가 있는 일면을 주목한다. 이광수는 북경을 방문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지만 그의 소설에서 북경이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실제

적 경험과 모순된 문학적 북경 표상은 근원적으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그가 지닌 유교와 중국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요섭에게 북경은 도피처이며 현실을 회피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 작용한다.

1937년 북경 함락부터 해방까지 한국 주권 회복의 가능성을 더 이상 중국에 기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협력에 나서며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일제의 부정적인 중국관에 동조하게 된다. 반면 일제 협력을 거부하는 지식인들은 중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일제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고 한다. 김사랑은 중국을 연대와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문화중심인 북경을 경유해서 한중 문화적 연대에 기반하여 전통 문화의 ‘고차원적 회복’으로써 한국의 탈식민화를 실현하여 평등하게 공존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반면 식민지적 인식 체계의 영향을 받았던 정비석은 북경을 비롯하여 중국을 비천한 존재로 부정한 것은 일제의 진영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피정복자로 표상함으로써 피식민자에서 일약 정복자의 대오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의 허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영웅소설의 무장화소 연구

곽 보 미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본고는 영웅소설의 무장(武裝) 화소의 위상과 성격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영웅소설의 유사한 구성 방식, 즉 유형성(類型性)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영웅소설의 유형성은 구조론과 유형론에 입각하여 해명되어 왔으나, 이들 방법론으로는 여전히 그 유형성을 설명하기에 난점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화소 분석을 통해 영웅소설의 유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작품들의 화소 분석을 통해 화소 분포 양상을 확인한 결과, 무장화소가 영웅소설에서 점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무장화소가 영웅소설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영웅소설의 화소를 전체적으로 추출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여 그 화소의 층위를 ‘기본화소’와 ‘선택화소’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 영웅소설 내 화소 결합의 원리를 살피고, 화소 간 결합이 특정한 ‘서사 패턴’을 이룰 수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영웅소설의 작법상의 원리를 규명하고, 여기서 무장화소가 점하는 위상을 살폈다. 다음으로 영웅소설에서 무장화소가 갖는 서사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영웅소설의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무장화소의 발현 양상을 살핌으로써 앞선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먼저 무장화소의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무장화소의 발현 정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무장의 주요 형태가 뚜렷한지, 무장에 대한 서사화 정도가 구체적인지, 작중에서 무장이 쓰이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는지가 기준이 되었다. 그리하여 영웅소설 가운

데 무장화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작품, 미약하게 나타나는 작품, 탈락된 작품으로 나누고 그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그 양상과 서사구조의 관계를 서사 패턴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영웅소설의 서사문법과 무장화소의 관계를 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의거하여 무장화소가 갖는 장르적 및 서사지향적 의의를 밝혔다. 먼저, 무장화소의 유래를 추적하여 무장화소의 주요 형태의 연원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영웅소설의 형식적 표징이 될 수 있음을 영웅소설 작품의 이본 간 비교와 다른 고전소설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무장화소가 작품의 서사지향에 끼치는 영향을 보이고자 하였다. 먼저 무장화소가 흥미소로서 쓰였음을 그 연원과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살폈다. 그리하여 무장화소가 현저한 작품과 탈락된 작품이 갖는 서사지향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무장화소가 흥미소로서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선택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무장화소의 면모와 성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무장화소가 영웅소설의 장르적 표징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다만 본고는 영웅소설의 다양한 이본 속 무장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또 영웅소설과 다른 고전소설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김 태 우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습-}의 기능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시적 언어관에 입각하여, 공시대 속에 보이는 변이와 예외는 통시적 변화의 산물로 보고, 변이의 요인과 변이들 사이의 통시적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통시대 속에 보이는 기능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통시적 대응을 확립하고 변화의 요인을 밝히는 종합적인 통시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언어 변화의 주체로서의 화자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변화의 초창기에 보이는 소수의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객체지향적 {-습-}의 기능과 15세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살폈다. 둘째, 청자지향적 {-습-}의 발달 시기를 확인하고 문법적 특성을 검토하여 기능을 밝혔다. 셋째, 청자지향적 {-습-}의 발달 동인을 논의하였다. 넷째, 선어말어미 {-습-}이 청자지향적 기능을 획득한 후 청자 높임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객체지향적 {-습-}의 사용 조건에 대해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검토하였다. 객관적 관계와 주관적 관계라는 인물 관계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이 객체지향적 {-습-}의 사용에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15세기의 객체의 범위는 유추적 확장을 통해 넓어진 것이며, 15세기에는 주체를 제외한 모든 성분에 대한 높임을 담당하고 있었음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담화·화용론적인 요인에 의해 {-습-}의 사용이 제약되는 양

상이 확인되었다.

청자지향적 {-습-}은 늦어도 16세기 전반기에는 용법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의 청자지향적 {-습-}은 17세기 이후의 청자지향적 {-습-}과 문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17세기의 청자지향적 {-습-}은 분포 제약이 없는 반면, 16세기의 청자지향적 {-습-}은 통사론적으로 제약된 위치에서만 나타났다. 화계 제약, 인칭 제약, 어미 제약으로 이름 붙인 16세기 청자지향적 {-습-}의 통사론적 제약은 16세기 청자지향적 {-습-}의 기능이 물리적·인지적 분절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변화의 동인으로 연결어미 등 청자 높임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자리에서 청자 높임의 필요성을 느낀 화자의 의도적인 변용에 의해 청자지향적 {-습-}이 형성되었다는 표현론적 전용을 제안하였다. 다른 시기의 문헌 자료와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연결어미 앞에서 청자 높임의 필요성이 상존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현론적 전용을 의미론적 재분석과 비교·대조하여, 기능 변화의 기재로서의 표현론적 전용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17세기 이후 청자지향적 {-습-}은 진술 태도의 겸양으로 기능이 변화하였고, 16세기에 보이던 통사론적 제약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객체지향적 {-습-}이 쇠퇴하고 {-습시-}가 활성화되었다. 통합 위치가 뒤로 이동하여 청자 높임 종결어미와 형태론적으로 융합된 청자지향적 {-습-}은 청자 높임의 어미의 기능을 흡수한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청자 높임 체계는 15세기 이후 이어져 오던 {-으이-}의 유무 대립을 통한 높임과 안높임의 체계로부터 {-습-}의 유무 대립을 통한 청자 높임 체계로 재편되었음이 논의된다.

박사학위 논문

眞言의 한글 표기법 연구

안 영 희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眞言”은 불경에서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陀羅尼”라 부르기도 한다. 『五大眞言』(1485)은 다섯 개의 眞言을 모아서 만든 眞言集 자료이다. 진언을 기록한 문자는 梵字, 漢字, 한글의 세 가지 문자이다. 梵字는 悉曇梵字에 속한다. 이는 대개 7세기-13세기 북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던 문자이다. 범자로 기록된 제일 이른 시기의 진언자료로는 葛項寺의 묵서 다라니인 准提眞言(758)이다(남권희 2005). 한국에서 범자 다라니는 늦어도 8세기 중엽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다. 진언의 실담범자는 일본에서 전승되어 온 실담범자와 일부 자형의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담범자의 범주에 속한다.

본고는 오대진언(1485)에서 한글의 眞言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먼저 진언 범자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부터 진행하고 다음 음절단위로 梵·韓·中 대응을 찾아 통계하였다. 한자의 음가는 중국에서 불경이 번역되던 7-8세기의 前期 中古漢語 시기 재구 음가를 참고하였다. 제2장에서는 범자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을 하고, 제3장에서는 범자 기본 음절 단위의 한글 표기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범자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한글 표기와 실담장에서의 표기 원칙과 비교를 하였고 일부 당시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도 찾아보았다.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우선 기본 음절에서 범자 자음 ‘s’, ‘y’의 구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 ‘이’가 대응하고, 범자의 ‘e’ 모음에 한글 ‘예’가 대응하고 범자의 ‘ai’ 모음에는 ‘애, 이, 예’가 대응하며, 범

자의 ‘u’와 ‘o’ 모음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는다. 다음 복자음 음절에서 ‘C+제2자음’류는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범자 ‘kra’는 한글 표기 ‘ㄱ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표기를 사용한다. 즉 범자 ‘kya’는 한글 ‘ㄱ야’로 표기된다. 그리고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ma-rga’은 한글 ‘말아’로 표기한다. 즉 한글 ‘-ㄹ’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류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기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의 한글 표기는 ‘ㅅ따’이다.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반영된 음운적 현상을 본다면 먼저 초성자음에서 ‘ㄱ, ㄷ, ㅂ’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 한글 모음의 분류와 한자 운모의 등운과의 규칙성 대응의 경향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인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양상이 보였다. 그리고 범자의 복자음 음절에서 자음의 연쇄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스바, 스간, 스니, 스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합용병서의 ‘ㅅ빠, ㅅ식, ㅅ시, ㅅ싸’와 혼용되는 현상이 있다. 만약 당시 합용병서의 음가가 된소리 즉 경음이었다면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ㅅ’ 종성표기는 ‘ㅅ’계 합용병서 표기와 혼용하여 나타는데, 만약 당시 ‘ㅅ’ 종성자음이 내파음으로 발음되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1930년대 한국 신극운동의 전개과정과 담론구조

이 광 욱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고는 1930년대 한국 신극운동의 전개과정과 담론구조를 분석하여 신극 담당자들이 지향한 목표와 실천 방안의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한 연구이다. 그간 한국 신극운동은 서구 사실주의의 이입을 목표로 한 근대극운동으로 규정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1930년대 후반기는 신극운동의 이상이 궤멸된 시기로 평가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신극운동의 근원적 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극이 극장을 둘러싼 관객 공동체의 기대지평을 근거로 출현한 개념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극은 극장문화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생산자들의 욕망과 인정의 심급으로 작동하는 수용자의 공동체를 근거로 형성된 개념이며, 신극운동은 이와 같은 기대지평을 보존하는 가운데 연극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문화적 기획의 형태로 수행된 활동이었다.

1920년대의 신극운동을 대표한 집단인 토월회의 역사적 좌표는 신극운동의 초창기에 드러난 두 조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었다. 즉, 동경 유학 생활로 구성된 토월회는 극예술협회로부터 비롯된 문화운동의 선구성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기성 극단들의 자기반성을 통해 결성되었던 예술협회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집단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신극운동의 상을 추구했던 토월회는 경쟁적인 문화산업장 속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면서 안정적인 극단 운영을 위한 물질 토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보다 진지한 신극운동을 요청했던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고, 활동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1930년대에 출현한 극연은 토월회의 상업주의적 경향과 담론적 실천의 부

재를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입각점을 세워나간 집단이었다. 다만, 극연 역시 조직의 핵심 목표를 공연활동에 두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신극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본고는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관점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기획을 재검토하고자 했다. 극연의 담론적 실천은 신극의 지지자를 내포관객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극연의 신극운동은 ‘근대극운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연구극’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지역주의에 근거한 번역극과 ‘교양’으로서의 연극 개념은 곧 ‘문화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해 주었던 핵심적인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곧 신극 관객의 존재를 계몽의 대상으로 일원화시키고 신극의 상을 특권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태도가 ‘신극’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근거들과 괴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즉, ‘신극’은 ‘조선의 연극문화 건설’이라는 긍정적 미래상을 전제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극연의 문화적 기획에 내포된 편협성은 오히려 연극문화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기의 신극운동은 종합예술의 구현을 가능케 해 주는 기술적 역량의 토대 위에서 ‘관객-배우-희곡’을 아우르는 연극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연극의 상을 지향하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들은 극연의 문화적 헤게모니 상실과 국민연극으로의 경사과정을 곧 ‘신극운동’의 막다른 골목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통속화’라는 윤리적 단죄의 굴레를 덧씌워 놓았다. 그렇지만 1930년대 후반기에 제출되었던 이론적 탐색의 성과들과 저류해 왔던 가치체계들의 복권 양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문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연극의 상수이자 변수인 관객의 존재와 그들이 내면화한 모종의 기대지평이야말로 국민연극의 내파와 균열을 불러일으킨 가장 유력한 진원지였던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장 문 석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한국 근대의 역사적 경험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방)·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다층적인 역학과 복합적인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는 역동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그간 한국과 세계의 표상은 비교적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비해 동아시아의 표상은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1960-1970년대 최인훈 문학을 분석하여, 동아시아라는 표상의 재현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1936년생으로 유년시절 식민지를 경험한 소설가 최인훈의 생애와 글쓰기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과 밀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인훈 문학을 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과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 인식과 ‘시간’으로서의 아시아, 주변부의 역사 경험과 ‘원리’로서의 아시아.

최인훈 문학의 정치적 상상력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60년 4.19혁명과 일본의 안보투쟁 직후 최인훈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형성기인 해방 후 8년의 시공간을 주목하면서 ‘중립’의 상상을 기입하였다. 이후 쿠데타로 혁명이 실패한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한국 지식인의 이동불가능성과 재현불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일’의 이념을 신중히 재현하였다. 1970년대 초반 데탕트 국면에서 그는 비지식인 주체의 생활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분업에 기반한 ‘사회적 평화’의 형성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동시에 최인훈 문학은 비서구 근대의 후진성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졌다. 1960년대 초반 최인훈은 서구적 양식인 교양소설을 통해서, 서구 근대

의 이념과 한국의 현실 사이의 낙차를 선진과 후진의 시간적 거리로 포착하고, 한국의 문화적 조건을 후식민지(postcolony)라는 문제틀로 이해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그에 앞서 같은 고민을 하였던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의 문학에 자신의 문학을 겹쳐 쓰며 양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인훈의 ‘겹쳐 쓰기’는 서구의 근대와 달리 완미하지 못했던 한국의 근대를 ‘전통’으로 구성하는 시도였으며, 이를 통해 직선적 발전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층성에 근거하여 아시아의 시간적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최인훈 문학은 주변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사 재인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70년 전후 그는 세계사를 재인식하면서, 광역권에 근거한 공존의 원리를 탐색하였다. 논리를 통해 제시하였던 광역권의 원리를 현실에서 탐색하게 된 계기는 데탕트 시기 우발적으로 마주친 유년기 식민지 기억이었다. 최인훈은 식민을 이주로 파악하면서,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갈등 속에 공존했던 지역으로서 식민지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년기에 겹쳐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상기하면서 식민지 민중의 삶에 근거하여 ‘아시아주의’를 수행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환경’이라는 조건에 유의하여 세계사를 재인식하였다. 주변부 지식인 최인훈은 아시아 민중의 삶으로부터 서구적 원리와 구별되는 세계사 인식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아시아’는 서구라는 타자에 의해 주어진 명명이었다. 1945년 이후 동아시아는 탈식민지화와 냉전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영역 이상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최인훈은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에 유의하면서 점차 ‘공간’, ‘시간’, ‘원리’로서 아시아를 발견하였다. 그가 아시아를 사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한국이라는 주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세계 인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증언’의 미학과 윤리 연구

김 명 훈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손유경

본고는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증언’을 체험적 증언과 비체험적 증언으로 구분한 뒤 이 두 가지 형식이 김원일 소설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 논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같은 관점은 김원일 소설 전반을 재검토함으로써 귀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1970년대 「어둠의 혼」부터 2000년대 『아들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김원일 소설의 중심 축을 담당한 것은 한국전쟁과 좌익 이데올로그의 서사화였다. 이 작품군에 해당하는 소설들은 작가 자신의 한국전쟁 체험과 아버지에 대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김원일은 사회적으로 억압당했던 좌익 이데올로그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남한-국민국가의 이념적 외부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눠 갖게 되었고, 국민국가의 주권과 이념적 외부성 사이의 간극은 ‘실제 작가’의 ‘체험적 정보’를 담은 ④계열의 작품들 속에 분열과 균열의 계기들을 내장시키면서 동시에 ‘실제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분열된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미학적 전략들을 고안하게 하였다. 공동체를 향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과 왜곡된 정체성에 대한 윤리적인 인정을 요청하는 이 같은 생애쓰기의 형식은 기존의 서술 개념(자전적 소설, 고백 등)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

한편 김원일 소설 가운데는 해방 이후 정치적 문제를 다룬 초기 단편들과 ‘거창사건’을 서사화한 『겨울 골짜기』(1985),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다룬 『푸른 혼』(2003) 연작 등 한인의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개입되었지만 아직 공

식적인 역사로 승인받지 못한 사건들을 서사화한 작품 계열(이하 ⑥)이 존재한다. 이 작품들이 서사화하고 있는 사건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은폐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⑥계열의 소설은 이른바 ‘기억전쟁’의 격전지가 되었으며, ④계열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억압되거나 은폐된 ‘사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창작되어야 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김원일 소설에서 공존해온 ④와 ⑥계열 소설들은 모두 억압·은폐된 실제 사건들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같은 공통점은 김원일 소설을 ‘문학적 증언’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증언’은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체험한 자의 목소리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지만, 증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재구성의 계기를 내포하게 된다. 김원일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문학적으로 증언한 체험자이자 타인의 증언을 공동체와 매개하려 한 전문적인 작가이기도 했다. 이 같은 두 가지 조건은 ④와 ⑥계열의 소설들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며, 본고에서는 ④를 체험적 증언, ⑥를 비체험적 증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본론 세 개의 장에서는 체험적 증언과 비체험적 증언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김원일 소설의 ‘문학적 증언’에 내재된 미학적·윤리적 판단들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김원일의 ‘문학적 증언’은 1970년대 ‘말화 금지’ 사태 속에서 금지된 ‘내용’을 금지되지 않은 ‘형식’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2장). 1970년대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한 ‘문학적 증언’의 두 가지 형식은 1980년대 이후 상호 참조 및 해체 과정을 거치며 증언주체의 재정위를 요청하기에 이른다(3장).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증언 행위에 대한 작가의 메타적 인식이 문학의 재현 원리 자체를 탈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박사학위 논문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학적·국어학적 연구

이 상 훈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이 글은 현전하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다양한 異本들을 조사하고 수집한 후 이들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언해문을 국어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조선 왕조의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간행·반포되었다. 성종대에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간행한 것인데, 여러 차례 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異本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시대에 걸쳐 간행된 이 문헌은 국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총 60종이다. 이 글에서는 60종의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각 판본의 초간본 또는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판본을 대표로 삼아 언해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다양한 이본들을 초간본이 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종대 판본, 선조대 판본, 영조대 판본으로 분류한 후 서지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영향 관계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계통도를 그렸다.

다음으로 언해문을 대상으로 번역 양상, 표기 및 음운, 형태 및 통사, 어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번역 양상에서는 전체 번역의 경향을 살펴본 뒤 각 판본별로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고 표기에서는 각자병서, 연결어미 ‘아’의 표기, 분철 및 중철 표기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음운에서는 ‘병’, ‘△’, ‘.’

의 변화, 모음조화, 유음화, ㄷ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태는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이본들 간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고 통사는 이 책에 쓰인 특징적인 형용사와 동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이루는 특징적인 구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어휘에서는 이 책에서만 등장하거나, 다른 문헌 자료에 있더라도 그 용례가 드문 어휘를 대상으로 체언류, 용언류, 수식언류로 나누어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15세기 중세어에서 19세기 후기 근대어 시기에 걸쳐 많은 이본이 있는 국어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한문 원문을 대상으로 여러 번 언해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수정되었다면 시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언해문의 차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주요 국어학적 특징을 검토한 본 연구는 문헌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국어의 변화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접속 부사에 대한 인지·텍스트적 연구

서 반 석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이 논문은 한국어의 접속 부사가 문장 이상의 단위를 연결하여 텍스트를 구성할 때 나타내는 텍스트 생성적 성격, 그리고 후행문의 인지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접속 부사가 한국어 문법론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단위를 접속하는가’, 또 ‘어떤 언어 요소가 이에 포함되는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탐구를 시작하여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지적 개념인 ‘전경, 배경’과 텍스트의 구축 방식인 ‘확장, 전환’의 개념을 조합하여, ‘전환, 전경적 확장, 배경적 확장’의 개념을 설정하여 접속 부사가 텍스트의 생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별 접속 부사들이 나타내는 인지·텍스트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후행문의 상적 특성, 문장 성분의 공유, 정보구조, 대조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환, 전경적 확장, 배경적 확장’에 따른 분류는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술을 위한 분류법으로는 한계가 크기에, 의미에 따른 분류를 시도했다. 이에 ‘인과, 시간, 상술, 대립’의 네 가지 대의미로 분류하여 이에 속하는 접속 부사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인과’의 접속 부사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는 접속 부사의 선행 행 내용이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인과적 접속에는 선행 내용을 원인으로 삼는 ‘결과’, 어떤 사태의 궁극적인 인과적 양상을 담는 ‘귀결’, 선행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는 ‘원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결과’와 ‘귀결’의 접속 부사는 ‘전경적 확장’을, ‘원인’은 ‘배경적 확장’을 주된 인지·텍스트

트적 성격으로 갖는다.

4장에서는 ‘시간’의 접속 부사에 대해 살폈다. ‘시간’의 접속은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의 시간적 위치에 따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 내용이 동일한 시간적 위치에 있는 ‘동시’와 선행 내용 이후에 후행 내용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순차’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전경적 확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는 보다 전경적인 ‘완망적 동시’와 비교적 배경적인 ‘비완망적 동시’로 나눌 수 있다.

5장에서는 ‘상술’의 접속 부사를 보았는데, ‘상술’의 접속은 선행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거나 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선행 내용을 보강하는 정보가 후행하는 경우들이다. 여기에는 선행 내용이 동일한 사건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환언’, 선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예시’,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거나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첨가’, 선행 내용보다 한층 더 심화된 표현을 추가하는 ‘강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배경적 확장’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 보다 전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6장은 ‘대립’의 접속 부사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선행한 내용과 후행한 내용이 의미적·텍스트적으로 상반되는 경우인데, 상반된 의미가 이야기의 진행에 기여하는 ‘역접’, 선행 내용에서 기인한 기대가 부정되는 ‘양보’, 선행 내용이 정당성을 얻기 위한 예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예외’, 텍스트 차원에서의 상반을 보이는 ‘중단’이 포함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각 접속 부사가 나타내는 인지·텍스트적인 속성과 후행문의 제약, 의미 특성 등을 고찰해 보았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복합명사 형성과 통사부의 상관성 연구

이 상 욱

2018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 연구에서는 통사 구성에 대응하는 복합명사의 형성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어 언중의 단어 포착 능력과 단어 생성 능력을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복합명사는 'N₁+N₂'형 합성명사와 '-음', '-기' 결합형 명사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전제해 왔던 여러 가지 언어학적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단어형성론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 형태론의 연구 방법을 표방해 온 기존 연구의 근본적 한계가 '사전등재어'를 관찰 대상으로 삼아 온 데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임시어'가 관찰의 일차적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전에는 과거에는 형성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정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어'의 실례가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관찰의 대상이 사전등재어에 국한된다면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은 제대로 포착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임시어'가 관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방법론적으로 일상의 발화 상황 또는 코퍼스가 관찰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정립한 방법론적 가정을 전제로 하여 코퍼스와 인터넷, 일상의 발화 상황에서 'N₁+N₂'형 합성명사와 '-음', '-기' 결합형 명사의 후보군을 수집하고 수집한 예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코퍼스와 인터넷, 일상의 발화 상황에서 포착되는 'N₁-N₂'형 구성에는 문법적 지위와 유형이 서로 다른 구성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어의 관형 명사구 구

성은 속격 조사 ‘-의’가 결합될 수 있는 유형과 결합될 수 없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속격 조사 ‘-의’가 결합될 수 있는 유형에는 속격 조사 ‘-의’가 반드시 결합된 형태로만 나타나는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다. 후자는 기존 연구에서 통사적 합성명사로 분류해 온 ‘ N_1+N_2 ’형 합성명사에 대응되는 것이다. 한편 속격 조사 ‘-의’와의 결합을 불허하는 유형에는 기존 연구에서 형태적 합성명사로 기술해 온 예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종래 ‘ N_1-N_2 ’형 구성의 N_1 이 N_2 의 〈형상〉, 〈재료〉, 〈수단〉이나 〈방법〉등으로 해석될 경우에 N_1 은 속격 조사 ‘-의’와 결합될 수 없고 N_1 또는 N_2 가 구적으로 확대될 수 없으므로 이때의 ‘ N_1-N_2 ’형 구성은 형태론적 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태론적 구성에서만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온 N_1 의 의미가 N_1 이 속성적 명사구인 ‘ $N_1\#N_2$ ’형 관형 명사구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포착되는 것임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 N_1+N_2 ’형 명사와 ‘-음’, ‘-기’ 결합형 명사의 형성 기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제는 ‘재분석’과 ‘통사 구성의 공식적 단어화’이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 한자어와 한자혼종어의 구조 연구

하 성 금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본고의 목적은 기존의 한국 한자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허사 한자형태소를 구성요소로 하는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들의 형태 통사적 특징을 고찰하여 한자어의 구조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허사 한자형태소는 한문문법에서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가 문법화를 거쳐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문법적 기능을 실행하는 문법형태소에 해당하는 한자형태소이다. 이러한 허사 한자형태소는 한국어의 조사 ‘-으로’, ‘-부터’, ‘-와/과’, ‘-의’, ‘-에서’ 등과 유사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과 ‘-으면’ 등의 연결어미와 유사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며 앞뒤 성분을 연결해주는 유형, 그리고 명사성 어근 또는 동사성 어근과 결합하여 특징의 단어들을 형성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허사 한자형태소를 조사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 어미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 접사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로 분류하고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 한자어들에 대한 형태 통사적 분석을 전개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자어를 ‘한자형태소가 포함된 어휘항목’으로 설정하고 한자형태소를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사 한자형태소와 문법화를 거쳐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허사 한자형태소로 분류하였다. 실사 한자형태소는 어휘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허사 한자형태소는 문법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한자어를 ‘한자형태소가 포함된 어휘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본고에서의 연구 대상은 실사 한자형태소 결합형과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 외에 실사 한자형태소와 비한자어가 결합한 한자혼종어도 포함하게 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한자혼종어는 실사 한자형태소와 고유어, 외래어 등의 결합형으로 ‘날強盜’ 등과 같은 2음절 한자어와 비한자어의 결합형은 논외로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한자혼종어를 구성하는 비한자어에는 ‘물, 하늘, 햇-, -꾼’ 등의 고유어 단어나 접두사, 접미사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알코올, 페인트’ 등의 외래어 단어와 ‘-은/는, -으로, -건대’ 등의 고유어 조사나 어미도 포함된다.

실사 한자형태소 결합형은 형태적 관계에 따라 ‘강산(江山), 독약(毒藥)’ 등의 ‘자립성+자립성’ 구조, ‘강변(江邊), 총수(銃手)’ 등의 ‘자립성+의존성’ 구조, ‘탈색(脫色), 친형(親兄)’ 등의 ‘의존성+자립성’ 구조, ‘친가(親家), 가감(加減)’ 등의 ‘의존성+의존성’ 구조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사적 관계에 따라 병렬 구성, 중첩 구성, 수식 구성, 주술 구성, 술목 구성, 술보 구성 등의 6가지 나누어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실사 한자형태소와 비한자어 결합형 즉 한자혼종어는 한자형태소가 앞에 위치하느냐 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한자어의 구조유형에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자-비한자’ 구조와 ‘비한자-한자’ 구조로 나누어 각각의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결합어의 구조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은 조사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 어미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 접사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 결합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조어법과 의미 통사적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조사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에는 ‘이(以)1, 종(從)1, 자(自), 여(與), 지(之), 우(于), 어(於)’ 등이 포함되고, 어미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에는 ‘즉(則)’이 포함되며, 접사적 용법의 허사 한자형태소에는 ‘대(對), 종(從)2, 피(被), 이(以)2, 소(所)’ 등이 포함된다. 한문문법에서 문법화를 거친 허사 한자형태소들의 문법적 기능은 단어 내부뿐만 아니라 일부는 단어 외부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화제의 속성과 실현 기제에 대한 연구

김민선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본고의 목적은 화제는 인지상태와 언어형식 간의 대응 문제이고 담화 실체인 동시에 문장성분이라는 인식을 분석에 반영하여, 한국어 화제의 특성을 구명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어 화제의 기능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화제의 속성을 주의 내 기존성으로, 실현 기제를 문두와 조사로 각각 파악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자유로운 어순과 다양한 표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의의 현저성은 문두 배치를 통한 문장의 분절로, 주의의 전환·승계 속성은 구문의 선택과 조사의 통합을 통해 각각 실현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 화제는 전환 화제와 승계 화제로 구분되고 전환 화제는 다시 대조화제와 비대조화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기존성을 청자의 인지상태 내에 해당 명제·실체가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으로 규정하고, 출처가 되는 인지상태에 따라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지식·의식과 관련되고 후자는 의식 내 주의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상이 되는 명제·실체와의 조합에 따라 지시적 기존성은 각각 전제·한정성으로 실현되고, 관계적 기존성은 각각 배경·화제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화제를 제외한 세 유형의 기존성은 화제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었다. 배경-초점 분절은 명제의 분절과 직결되고 화제-평언 분절은 문장의 분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문두 구문에 전치, 좌측전위, 중주어, 자유화제를 포함시키고 이들 구문의 화제는 대개 전환 화제이며 대조화제·비대조화제 여부는 조사에 따라 결정되

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화제 전환은 담화 단위 경계에서 실현될 때도 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실현될 때도 있는데 전지 구문은 특히 담화 간보다 문장 간의 화제 전환에 더 적합한 것으로 구명되었다. 문장 간 전환 화제는 초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배경·초점 여부는 대조비대조 여부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통해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구문별로 상이한 화제와 후속 성분 즉 평언 간의 관계도 전환 단위와 전환·승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조사 구문에 ‘는’, ‘가’, 무조사, 성분생략을 포함시키고 이들 구문의 화제는 조사에 따라 대조비대조 여부는 물론이고 전환·승계 여부도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화제 승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만 실현되는데 성분생략은 특히 화제 승계만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는’과 ‘가’는 각각 연결 대조와 이접 대조를 형성하며 이접 대조의 ‘가’는 초점에 더 밀접하여 문장 간 전환 화제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무조사는 대조와 관련되지도 않고 비한정성과 관련되지도 않아 ‘는’과 ‘가’ 모두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화제는 인지상태의 측면에서는 ‘주의 실체’, 언어형식의 측면에서는 ‘정언문의 문두 성분’, 정보 배열의 관점에서는 ‘후속 부분의 정보가 첨가되도록 한정된 영역’으로 각각 수립되었다. 화제의 일종인 제시어는 화제와 후속 성분 간 경계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한 화제로 취급되었다. 실제 담화에서도 문두와 조사를 통한 화제의 실현이 비교적 잘 관찰되었다. 다만 분석을 위해 암시적 설명의문문을 남발하거나 생략된 성분을 억지로 복원하고 화제·평언으로 분절되지 않는 문장들의 존재를 무시한 점은 극복되거나 반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어학 박사학위

인지구성문법에 기반한 한국어 ‘이다’ 구성 연구

사 례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본 연구의 목적은 논항 구조를 하나의 구성으로 간주하는 인지구성문법(Cognitive Construction Grammar, CCxG)적 접근이 한국어의 ‘이다’를 설명하는 데에 효율적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한국어 ‘이다’와 관련된 구성들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 특히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다’ 구성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기도 하였다.

구성문법, 특히 Goldberg의 인지구성문법은 구성을 형식과 의미 또는 기능의 짝이라고 정의하고, 예측 불가능성과 높은 출현 빈도라는 판단 기준을 내세웠다. 이처럼 정의된 구성은 고유의 논항 역할(argument role)과 의미를 지니고, 고유의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과 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한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불일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불일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강요(coercion) 현상이 일어나 구성이 동사가 어떠한 변화를 겪도록 강요한다. 한편 이처럼 정의된 구성들은 서로 간에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IP-link)’, ‘부분 연결(Subpart Link/IS-link)’, ‘예시 연결(Instance Link/II-link)’, ‘은유적 확장 연결(Metaphorical Extension Link/IME-link)’ 등 다양한 계승 연결(inheritance link)을 통해 계승 관계(inheritance relation)를 맺는다. 따라서 인지구성문법적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의의들을 동사 등 술어에 억지로 부여할 필요가 없어지게 하는 등 여러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국어의 ‘이다’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구성문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의 ‘이다’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이다’의 문법적 정체가 무엇인지를 논쟁하거나, ‘이다’에 여러 의의를 부여하여 살펴보거나, ‘이다’가 관여하는 패턴들을 단순히 기술하거나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이다’가 관여하는 논항 구조에 대한 고려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다’가 관여하는 패턴들을 형식과 의미 또는 기능의 짝으로서의 구성으로 파악하고, 또한 기존 논의에서 ‘이다’ 자체에 귀속되었던 다양한 의의(sense)들을 구성이 가지는 다의성의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다’의 문법적 정체에 대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고, 경동사적인 성격을 보이는 ‘이다’에 수많은 의의들을 부여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고는 ‘계승 연결’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다’의 여러 구성들 간의 계승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의 ‘이다’ 구성을 더욱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다’ 구성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의 혼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 연구

석 해 매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진호

혼효(blending), 잉여표현(redundancy), 전염(contagion)이라는 세 가지 언어 현상은, 종래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그다지 중요한 언어 현상으로 취급 받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본고의 목적은, 실제적인 한국어 사례들을 통해, 사실은 이들이 모두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제들이며, 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혼효’(blending)는,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두 표현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말실수로 인해 각 표현의 일부를 가져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새로운 어형을 만들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말실수로 만들어진 어형은, 많이 쓰이면서 정착되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예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그런데 종래에는 주로 어휘 층위에서 일어나는 혼효 현상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사실 이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단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예를 들어 ‘우연히’와 ‘우연찮게’, ‘웬만한 N이면’과 ‘웬만한 N이 아니면’이 왜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지 등을 ‘혼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전염’(contagion)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식 혹은 의미의 일부가 바뀌어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전염은 영향을 주는 요소와 받는 요소의 관계에 따라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으로 나뉘는데, 이들을 전염되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나뉘 보면, 아래 5가지 패턴을 상정할 수 있다.

【통합관계】

- ① 요소 A가 공기하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 ② 요소 A가 자주 공기하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바뀌는 경우

【계열관계】

- ③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 ④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
- ⑤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결합속성이 바뀌는 경우

‘잉여표현’(redundancy)은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적으로 두 번 이상,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동기별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한국어의 특징과 발화 동기 때문에 생기는 잉여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훈효’에 의해 생기는 잉여표현이다(예: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휘 측면의 잉여표현이 많은 주목을 받아 왔으나, 사실은 잉여표현은 형태소부터 단어, 구, 문장, 담화 수준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도 지적한다.

이처럼 ‘전염’과 ‘훈효’, ‘잉여표현’은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식 A가 형식 B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일부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형식의 전염’이라고 부른다(예: 넓다寬, 廣/너르다→넙다). 그런데 B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A와 B에서 반 정도씩 형식을 가져와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전형적인 훈효’가 되며(예: 잎담배/엽초→잎초), A와 B의 형식이 둘 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훈효에 의한 잉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예: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은 결과물 중에 포함되는 A와 B의 비율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담론 전유 양상:

이해조 · 이광수 · 김동인을 중심으로

이 학 영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종육

이 논문은 20세기 초 한국 소설의 근대 과학담론 전유(專有) 양상과 그 서사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시기에 각종 신문과 잡지, 학회지와 과학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분과의 자연과학 지식이 담론화되었고, 그 지식들에 깔려 있는 기계론적 자연관은 속신(俗信)이나 유교의 유기체적인 자연관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진화론과 에너지론은 단순한 과학적 가설이나 학설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과학사상으로서 당시 지식인들의 패러다임과 세계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과학담론은 한국 현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 자양분이었다. 특히 이해조·이광수·김동인의 소설은 과학적 소재를 원용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문학사상과 작품 고유의 질문에 의해서 과학담론이나 과학적 아이디어를 전유함으로써 그 ‘변형’을 촉발하였다.

이해조의 소설은 유교주의의 필터를 통해 기계적 우주론을 담은 과학담론을 전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는 기상학과 천문학의 신지식들을 소설에 자주 배치하지만, 서구 자연과학의 기계론과 인과론을 채택하지 않고 유교의 자연철학과 감응론(感應論)을 고수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해조의 범죄서사는 서구의 추리소설과는 달리, 정탐자의 지적인 추론보다는 피해자나 저암자의 도덕적 판단력, 그리고 그에 감응한 ‘천리(天理)’ 그 자체에 의해서 죄상이 밝혀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광수는 진화론과 에너지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에너지 우주론’이라 명명할만한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정립해나간다. 그는 ‘갈바니즘’, 즉 전기를

생명의 정수, 혹은 생명의 원인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론’의 관점에서 ‘감정(情)’이나 정신적 활동을 바라본다. 또한 그는 ‘육망→요구→의지→활동→문화’로 이어지는 문명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과정을 도식화하고, 그러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환이 문명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장편 소설 『無情』은 이러한 ‘에너지 사상’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개체의 발생 속에 종의 진화의 전 과정을 압축해 넣은 헤켈(Ernst Haeckel)의 개체발생론(ontogeny)을 변형하여, 퍼텐셜 에너지로서 인간의 내부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고양하고 해방해야한다는 독특한 주체 발생론을 보여준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김동인의 소설은 과학이 상대화되고 그 양가성이 부각되는 과학담론에 대응하는 텍스트이다. 그는 창조적인 자기실현이라는 낭만주의적인 목표를 지상 과제로 삼고 있었던 만큼 과학의 분석이 닿을 수 없는 영역, 즉 과학의 ‘외부’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소설을 통해 근대과학이 배제하고자 했던 우연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비결정론 등에 대해 탐구했다. 그의 소설은 줄곧 어떤 합리적인 계획, 지배와 조절, 예측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은, ‘우연성’이나 ‘카오스적 복잡성’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세계의 비극을 강조함으로써 과학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해조의 범죄서사에 나타난 기계론과 감응론의 혼종성, 그리고 이광수의 ‘에너지 우주론’, 김동인의 우연성에 대한 탐구 등은 서구 근대과학을 상상력의 한 원천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단순성 패러다임에 응전해온 한국 현대문학의 폭과 깊이를 아울러 보여주는 결실이라 하겠다.

박사학위 논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연구:

『천수석』 및 『임화정연』 연작을 중심으로

채 윤 미

고전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한글장편소설 『천수석』·『화산선계록』 연작과 『임화정연』·『쌍성봉효록』 연작 네 작품에는 신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 내용으로 나온다. 본 논문은 네 작품의 이러한 특징을 ‘도교서사’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하고, 도교서사란 신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건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련, 요괴, 도술 이야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네 작품에 나타난 도교서사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가 갖는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네 편 소설의 도교서사와 연관된, 이른 시기에 나타난 국내 서사와 중국 소설을 살펴보았다. 국내 서사 중 「남궁선생전」, 「장산인전」, 『소현성록』은 각각 수련, 도술, 요괴 이야기를 도교와 결부시켜 형상화한 점에서 네 편 소설과 유사성이 있었다. 또 네 편 소설에는 중국소설 『평요전』, 『서유기』, 『봉신연의』, 『수호전』의 흔적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중국소설과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간에 영향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천수석』, 『임화정연』, 『화산선계록』을 대상으로 수련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수련 이야기의 서사 전개에 따라 수련의 계기, 과정, 결과를 살펴보고 의미를 분석한 결과 『천수석』과 『임화정연』의 수련 이야기가 지배 이념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다면, 『화산선계록』의 경우는 지배 이념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예고하였다. 이 작품은 도술 이야기를 핵심

서사로 다루면서 그러한 주제를 구현하는데, 수련 이야기는 도술 이야기의 전개를 예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IV장에서는 『쌍성봉효록』과 『화산선계록』을 대상으로 요괴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특히,惡을 상징하는 요괴가 도교와의 연관 아래 형상화된다는 점과 惡女들이 요괴와 결탁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요괴 형상화를 통해 두 작품에서 요괴 이야기는 통속적 흥미를 제고시키는 한편 주제 구현에도 영향을 끼쳤다. 요괴는 악녀와 결탁하여 가부장제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므로,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념적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다.

제V장에서는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화산선계록』을 대상으로 도술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도술 이야기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든 신선의 도술로 해결되는데, 요괴가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작품들은 요괴의 도술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고 신선의 도술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도술 이야기를 통해 『임화정연』은 지배 이념을 수호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로써 『임화정연』은 수련 이야기를 통해 지배 이념에 균열을 가하는 의식을 보이고 도술 이야기를 통해 이를 봉합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쌍성봉효록』과 『화산선계록』은 도술 이야기를 통해 지배 이념을 실현하는 주제를 통속적인 방식으로 담고 있었다.

제VI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도교서사의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단편소설과 달리, 한글장편소설은 신선 형상을 통해 도교가 지배 이념을 수호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듯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에 이르러 도교가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는 차원에도 개입하게 된 것은 소설사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도교가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의미를 지닌 단편소설들이 소설사적으로 보여준 의미를 염두에 두면, 한글장편소설에서 도교가 보여준 의미는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닌다.

한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는 장편소설 창작방법의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를 지닌다. 고전소설사의 전개와 함께 신선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향유층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한글장편소설 네 작품에서 종합적인 면모를 지닌 도교서사가 시도된 것으로 이해된다.